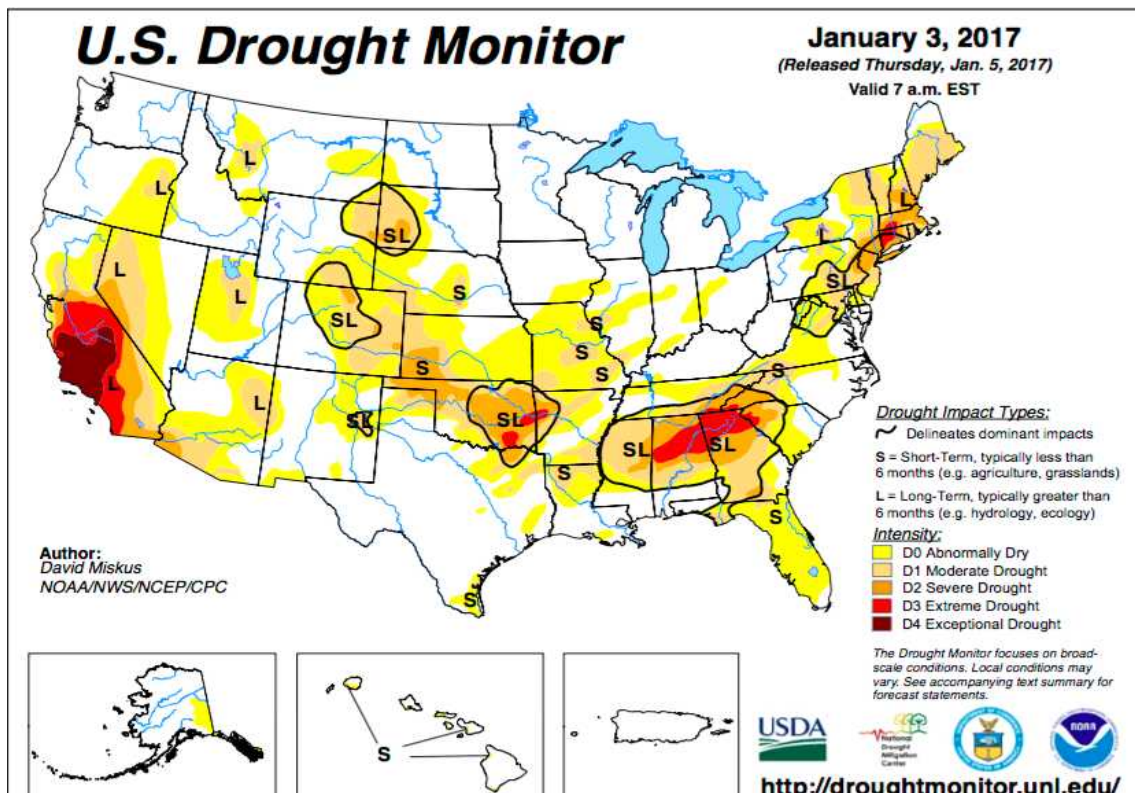


1월 1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2)

□ 미국 기후 현황(1/1~1/7)

캘리포니아에서는 1월 1일과 7일 강력한 폭풍우가 찾아와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렸다. 산간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쌓였고, 그 밖의 많은 지역에서는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피해도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해안 일대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대평원 일대에서도 눈이 내렸고, 텍사스 북부에서는 눈이 농지에 쌓이면서 한파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 주었다. 남동부에서는 2~8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동부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미시시피 델타 일대에서는 눈이 내렸고, 대서양 연안 중부에서부터 뉴 잉글랜드 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강풍이 부는 가운데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주 후반에는 플로리다 남부 및 남서부 사막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파가 몰아닥쳤다. 북부 일부 지역과 서부 내륙 산간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20°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남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을 유지했고,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다.



□ 농업 현황 요약(1/2~1/8)

남서부와 대서양 연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은 날을 보였다. 로키산맥 북부 대부분의 지역과 북부 평원 북쪽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5°F 이상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난 한 주간 강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남동부에서는 예외적으로 6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1~1/7)

■ 유럽: 프랑스와 독일 서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날이 이어졌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도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졌고, 농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스페인 동부와 이탈리아, 그리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곳에 따라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스페인 북부에서는 밀, 보리 등의 재배지역 일대에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독일 동부에서부터 헝가리,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고, 농지에 쌓인 눈은 영하 20°C 이하의 강추위 속에서 농작물을 보호해 주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지를 덮고 있던 눈이 녹아 겨울밀 등이 추위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휴면기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중부 등에서도 10~40cm 내외의 눈이 농지를 덮고 있어 농작물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주간 기후현황 요약은 2017년 3월부터 포함될 예정임.

■ 호주: 서호주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남호주와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등에서는 1~1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있으며, 호주 농림부에 따르면, 남호주와 빅토리아의 밀 수확률은 70~80%내외인 것으로 나타났고,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수확작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2°C 정도 높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중반까지 올랐다.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La Pampa 남부 지역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동부에서는 이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Bahia Blanca 등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Buenos Aires 북부, Salta, Formosa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중부의 Cordoba 남부 일부지역, Santa Fe, Buenos Aires, La Pampa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았다. 북서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률은 1월 5일 기준 각각 79%, 89%를 기록했다. 밀 수확률은 9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87%와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치이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비가 내렸고,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Mato Grosso do Sul 남부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옥수수, 대두 등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Rio Grande do Sul 주정부에 따르면, 1월 5일 기준 옥수수의 과중률은 97%, 그 밖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작물들의 수확률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한 가운데 서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Mato Grosso, Sao Paulo, Minas Gerais 남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서부와 중부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고, Mato Grosso 동부에서부터 북동부 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